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 전달

야노 전 일본어항협회 회장에게



▲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좌)이 야노 테르시게(矢野照重) 전 일본전국어항협회 회장(우)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 배평암회장은 한·일 양국 어촌어항 기술교류와 정보 교환에 진력하여 한·일 양국의 어항기술 향상과 양국 어촌 어항관계자간의 우호 증진에 공이 큰 야노 테르시게(矢野照重) 전 일본어항협회 회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을 지난 13일 열린 일본전국어항

어장대회 환영리셉션장에서 전달했다. 야노 회장은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여 한국에 대해선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하며 “한국어항협회와의 교류는 대단한 즐거움이었는데 이렇게 감사장 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기 그지없다” 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교류는 양국의 어항관계자들이 어업인의 생활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일 어항 관계자간에 완성된 어항을 서로 비교하며 시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도 전국적인 어항어장 대회를 개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고문직을 맡고 있는 야노 전 회장은 일본 수산청에서 어항부장을 지내는 등 공직생활을 30년간 한 전통관료 출신으로 한국어항협회 설립 당시인 1987년 일본 전국어항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어항협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했고 각종 어촌 어항 관련 정책자료, 기술도서 등을 제공, 한국의 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함께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초청,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해외어촌 어항조사단 파견 등에도 적극 지원, 우리나라 어촌어항 관계인사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니인터뷰 **야노 테르시게 전 일본어항협회 회장**



1. 한국과의 인연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京城帝國대학(현 서울대학교) 예과를 시험쳐 다행히 합격,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처음 방문한 백화점의 엘리베

어업자와의 공존, 번영에 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창 시절 3년 6개월 동안 머문 경험을 살려 어항분야 양국친선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터를 탔을 때 마늘 냄새를 강렬히 느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익숙해졌습니다.

2. 한국어항협회와 우의를 다져온 이유는?

회장 재임시절 한국어항협회 손정식 전회장으로부터 교분을 맺자는 내용의 문서를받았습니다. 이 문서를 받고 생각하기를 일본뿐 아니라 널리 세계의

3. 한국어항협회가 노력해야 할 점은?
한국어항협회의 존재감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후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하여 규모는 어떠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금후의 예산 획득 기타 어항행정의 충실, 협회의 활동에 큰 후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어촌 어항 어장 개발에 있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항사업에 있어서는 완성한 어항(성공, 실패에 불문하고)을 가급적 현지 시찰을 하고 또 많은 경험자의 말을 듣는 일입니다. 어항건설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자의 체험을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